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누구에게나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대부분의 실수는 무능과 무지의 반증과 결과라고 연이 되는 탓이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는 일은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성찰이자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래서 "실수를 저지르고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그것을 실수라고 말한다"라고 하지 않는가. 실수를 부정하는 것은 실수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고, 같은 실수의 반복 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 여기에 실수가 습관이 되는 이유가 있고, 실수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불행이 일어난다. 이런 뜻에서 실수를 인정하는 가장 큰 의미는 자기의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용기와 행동에 있다. 단합과 열림의 대립적 관계는 문을 닫아 놓은 채로 열어 놓을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정과 일상적 관계, 공적 영역에서도 같다. 일반적으로 폐쇄적이면 서로 동시에 상호적이고 대화적 개방성의 관계는 없다. 밖을 향한 문을 안에서 닫아걸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거짓일 뿐이다. 역사와 사회의 발전에서 단

열린 세상과 무오류성에 대한 환상

힉과 열림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다른 사람이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1902-1994)다. 오스트리아 빈의 유복한 유대인 변호사 가정에서 태어난 포퍼는 빈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유명한 대표 저서가 '열린사회와 그 적들'이다. 포퍼는 1938년 3월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오스트리아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을 위해서 저술을 시작했다. 포퍼는 인간의 역사를 열린사회와 닫힌사회의 투쟁 과정으로 규정한다. '열린'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상황과 조건에 대한 모든 가능성에 대한 개방이다. 열린 관계는 누구라도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나' 자신 역시 틀렸을 수 있음을 열어놓는 것이다. 그리고 열린 세상의 조건은 진리의 일방적 독점을 거부하고 다른 목소리, 다른 시선, 다른 경험을 매도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포퍼가 말하는 '열린사회'가 완전한 사회를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열린사회는 늘 움직이며 변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린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자신만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이며, 이는 전체주의의 조건이 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전체주의의 문제는 정치 영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지극히 일상적인 관계와 상황에서도 깊게 스며든 전체주의적 태도를 볼 수 있다. 개방을 표방하며 공부하는 모임이나 닫힌사회의 문제를 토론하는 자리에서조차 '열린사회'적 태도는

면 이야기다. 다른 의견과 시각은 불편해서 일시불란한 단합을 해친다는 이유다. 하지만 '열린'이라는 표현은 비판과 토론이 가능할 때만 건강한 의미를 생성한다. 충분히 열린 관계에서 비로소 서로 충돌하는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되고 엇갈리는 목표들이 다양하게 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닫힌사회는 마력이나 금기의 위력으로 통제되며, 특정한 선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의 규율을 마치 자연법칙과 같은 절대적인 것으로 수용한다. 과거의 부족사회처럼 '닫힌사회'에서는 사회적 금기와 규정을 해가 뜨거나 계절의 주기가 바뀌는 것과 같은 불변의 절대적 질서 체계와 법으로 간주한다. 결국 굴종과 침묵 강제 속에서 금기는 더 많은 금기를 만들고 억압적 굴욕으로 '나'의 오류에 대한 반증과 검증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차단한다. 열린 세상을 위해서 필요한 모두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인정은 개인의 무능과 열등함에 대한 지적과 공박이 아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독단과 그 위험을 막는 길이다. 이런 의미에서 논박이 가능한 이성적 대화와 반증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포퍼의 비판적 사유는 큰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누구나 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무오류에 대한 감각적 환상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자세다. 포퍼의 말처럼 "우리는 금수(禽獸)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남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 열린사회로 가는 길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수필의 향기



김향남
수필가

나비에게 묻고 싶은 것

니던가. 그런 나비가 어떻게 죽은 코블소 따위를 탐단 단 말인가. 사자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쳐도, 설마 나비가? 긴가민가 휘둥그레 화면을 바라봤다. 놀람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사투 기괴하기까지 했다. 자연의 생태를 보고하는 다큐멘터리를 두고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묘한 배반감에 한참을 헛갈린 채로 있었다. 세상엔 왜 이렇게 이상한 것도 많은지, 나는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지... 2. 나비는 처음부터 나비였을까? 그렇지 않다. 나비는 아주 작은 알이었다가 애벌레였다가 번데기였다가 성충(나비)으로 변신한 곤충의 일종이다. 곱들곶을 바닷물을 기다려 두 날개로 훨훨 공중을 날게 된 우화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벌레에서 나비로의 변신은 엄청난 비약이다. 하찮고 징그러운 벌레에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의 눈부신 전도(轉動). 그러나 그 거짓말 같은 사실을 어떻게 믿는다는 말인가. 옛날 어떤 사람도 나비를 보며 이런 대화를 나누었던가 보다. <바야흐로 꽃과 풀들이 한창인데, 온갖 나비들이 와서 즐기고 있었다. 흰 가루분을 바르고 붉은 점을 찍은 것도 있고, 날개는 검고 눈이 붉은 것도 있고, 누런색인 것도 있고, 담청색인 것도 있고, 오색이 갖추어진 것도 있었다. 나비를 잘 아는 사람이 날바이 그 이들을 알려주었다. 또 그 곱들곶마다 움직이는 모양을 아주 자세히 일러주고는 앞에도 침을 빨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는 좋아할 것 없네. 저것들의 근본은 아주 추하

기고



서금석
문학박사·전남대 전 강사

겨울 복판의 '입춘대길'

가 되었다. 대략 절기와 중기 사이는 15.218일 정도이며, 절기와 절기 사이는 30.437일가량 된다. 정수 날짜로 정확히 떨어지지 않으므로 절기와 중기가 15일인 경우가 많고 간혹 16일로 이 소수점 문제를 깔끔히 해결했다. 1년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고려시대는 절기가 드는 날에 관리에게 휴가를 주었다. 물론 이때의 휴가는 일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요즘의 공휴일 개념이 아니다. 절기가 드는 날이니 당연히 제사도 지냈다. 모여 조상을 기억하고 그 제삿밥으로 사람들은 제때 먹고살았다. 옛날에는 제사가 많았고, 주기적인 제사는 죽은 자와 산 자의 공생 기억 공간이자 영양 보충의 시간이었다. 한 해의 시작이 입춘부터라고 했으니, 사람이 태어나는 시간을 모티브로 운명을 예단하는 사주팔자에서 2023년 계묘(癸卯)년의 새해는 입춘인 2월 4일 시작한다. 파스한 때가 아니다. 그러나 시간의 방향이 뒷걸음치지 않으니 추운 겨울을 짐짓 염려할 필요는 없다. 입춘 때의 자연 시계는 따뜻한 봄을 바라보고 있으니, 봄의 대문을 열어 봐야 한다. 입춘은 봄을 맞이하는 대문 문턱과 같다. 아직 대문 밖 찬 바람이 멈추지 않으니, 입춘은 겨울 한복판 언저리에 자리를 잡고 있다. 차가운 겨울철에 봄(春)을 세우(立)야 하고, 누구나 그 출발선에서(立)야 하기 때문에 입춘(立春)이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야 했던 옛사람들의 희망과 의지, 지혜와 사랑이 입춘 속에 그대로 녹아 있다. 24절기는 술한 삶의 경험치로 태양 주기와 자연의

여 가까이할 수 없대네." 내가 말하였다. "아! 아니다. 자네는 벌레는 벌레로 여기고 나비는 나비로 여기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데 하릴 왜 나비를 벌레라고 하는가? 이것은 대장군이 된 '위왕'을 노비로 여긴 것이요, 충성스럽고 의리가 있는 '주처'를 패륜아로 여긴 것이며, 문장력이 있는 '곽원진'을 도둑이라 여긴 것이나 마찬가지네. 자네는 개구리의 꼬리를 탓하고 비둘기의 눈을 의심하고자 하니, 자네의 앞에 용인되기가 어렵겠거려.">(이육(李鎬) '백운팔' 중에서) 3.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나비는 주로 꿀을 먹고 살지만, 어떤 나비들은 나무의 잔엽을 먹고 살고, 어떤 나비들은 새똥 등의 동물 분비물을 먹고 산다. 동물 사체에서 흘러나온 액을 빨아먹는 나비도 있고, 사람의 땀 냄새를 좋아하여 등산객에게 날아드는 나비도 있다고 한다. 어떤 나비들은 진딧물이나 딱지벌레를 잡아먹기도 하고, 개미와 공생하면서 개미의 애벌레까지 먹어치워 개미의 씨를 말리는 나비 애벌레들도 있다고 한다. 무릇 벌레는 막대하고 나비는 환대하는 것이 사람 마유라 하지만, 나비가 벌레고 벌레가 곧 나비임에라. 아니다. 나비는 나비고 벌레는 벌레다. 나비도 벌레도 아무 말이 없으니 다만 보는 자의 시선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아무 말이 없어도 가끔 묻고 싶기는 하다. 벌레와 나비는 하나일까, 둘일까? 아니면 하나이면서 또한 둘일까? 그 나비는 왜 하릴 죽은 코블소에게로 갔을까?

社說

신안 해상 어선 전복...인명 구조 끝까지 최선을

신안 해상에서 선원 12명이 탄 어선이 향해 도중 전복됐다. 이 사고로 세 명의 인근에 있던 다른 선박에 의해 구조됐지만, 나머지는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실종 상태이다. 목표해양경찰에 따르면 그제 밤 11시 20분경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대비치도 서쪽 16.6km 해상에서 인건 선적 24t급 통발어선 정보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목표 광역해양감시센터(VTS)는 정보호의 위치를 파악해 인건 해상을 지나던 화물선 광양프론티어호에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광양프론티어호는 가장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해 정보호 위에 있던 한국인 두 명, 인도네시아인 한 명 등 세 명을 구조했다. 구조된 승선원들은 저체온증을 호소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들은 "갑자기 어선 기관실 쪽에 바닷물이 차 오르더니 순식간에 배가 옆으로 넘어가 전복됐다"고 전했다. 실종된 선원은 진도

소통 힘든 청각장애인 돕는 수화 통역사 늘려야

청각장애인(농아인)들에게 '수어' (수화 언어)는 모국어와 같다. 문법 체계와 어휘 방식이 전혀 다른 한글은 그저 외국어일 뿐이라는 게 농아인들의 이야기다. 하지만 광주 지역에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돕는 수화 통역사가 턱없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광주시에서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1만 783명에 달한다. 청각장애인들은 병원이나 은행, 공공기관 등에서 개인 업무를 볼 때 수어를 통역해 줄 '수화 통역사'를 대동해야 오류 없이 제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한때 현재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상주하고 있는 수화 통역사는 아예 없다. 그러나 광주시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수화 통역사도 대폭 줄어들어 장애인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자격증을 2년 동안 따지 못하면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열악해 이직이 잦기 때문이다.

無等鼓

지난 1일은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발한 지 만 2년이 되는 날이었다. 2020년 치러진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진보연맹 정당이 승리하자 군부는 이를 부정선거라 규정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미얀마 헌법은 비상사태를 최장 2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군부는 다시 6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미얀마의 근현대사는 쿠데타의 역사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주요 순간마다 군부가 정치 전면에 나섰다. 2차 세계 대전 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얀마(당시 국명 버마)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다. 1962년 쿠데타로 아웅산 수치의 리더십은 소수민족의 독립 요구와 악화된 경제난을 내세워 쿠데타를 감행했다. 정기간 군사정권의 폭압에 신음하던 시민들은 1988년 3월 '양곤의 봄'과 '8888 민주항쟁' (88년 8월 8일)을 전개한다. 그 결과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총선에서 압승을 한다. 그러나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는 민주화 열망을 짓밟고 만다. 시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금 민주화 시위를 전개했고, 그 결과 2015년 아웅산 수치의 NLD는 총선에서 승리를 쟁취한다. 하지만 군부는 민간에 정권을 이양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민간의 압도적인 승리를 부정선거라 규정하고 정권 찬탈의 기회로 악용한다. 이들 군부의 행태는 세계의 독재자들이 지행해왔던 행태와 궤를 같이하는데, 자국민 학살과 무력 통치 강화가 그것이다. 유엔인권사무소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에 살해된 시민이 3000여 명, 실의 타격을 입은 시민이 120만 명에 이른다. 칼로 흉한 자 칼로 망한다고 했다. 우간다의 도살자 이디아민, 이라크의 철권 통치자 사담 후세인, 세계대전의 전범 히틀러 등의 사례는 명징한 증거다. 지난해 사망한 전두환도 12·12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하고 5·18 당시 수많은 광주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권분십년 화무십일홍' (權不十年 花無十日紅)은 누구도 예외될 수 없다. 미얀마 쿠데타 사령관인 민 아웅 할라잉의 운명 또한 그리 멀지 않았을 것이다. /박성천 여론매체부 부국장skypark@

미얀마 쿠데타 2년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주국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